2026 KRX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벤치마크 진단

주요 항목별 벤치마크 진단 결과지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벤치마크 대비 현황 진단

수검 기업	**㈜위지트**	진단 기준일	**2026-08-19**
시장 · 업종	**코스닥시장 · 정보기술** (백서 모집단 24개사)	데이터 기간	**FY2023–FY2025 (제27기~제29기)**
재무제표 기준	**연결 (K-IFRS)**	기존 공시	**미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력 없음)**

종 합 판 정

위험 자본비용 미달 구간

위 험
R ADVISORY · VB

지배주주 ROE 5.7%는 정보기술 업종 실적선 14.8%와 목표선 17.3%를 모두 밑돌고, PBR 0.39배는 지배주주 순자산의 61%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3개 회계연도 연속 무배당·자사주 취득 0으로 배당성향과 주주환원율이 모두 0%이며, 12개 평가항목 자가채점은 0/24점이다. 판정 5건이 위험으로 몰린 원인은 수익성 한 곳이 아니라 자본효율·주주환원·연결 구조 세 곳에 나뉘어 있다.

판정 분포 — 대조 지표 11개

위험 5 · 주의 0 · 양호 0 · 참고/산출불가 6



■ 위험 — 두 기준선 모두 미달 ■ 주의 — 기준선 사이 ■ 양호 — 높은 기준선 이상 ■ 참고·산출불가 — 백서 벤치마크 부재 또는 입력 누락

출처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110p
목표치 = 완결형 공시 187개사가 약속한 수준(PART 02) · 실적치 = 시장 기록(PART 03)

ISSUED BY KONNECT

결과지 서식 v2.0 (2026-08-15)

제도의 취지와 핵심사항

PURPOSE OF THE PROGRAM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진단하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시장에 알리는 자율공시 제도다.

제도의 축은 「진단 → 목표 → 계획 → 이행평가 → 소통」의 순환이며, 그 출발점인 현황진단은 자본수익성(ROE)·자본비용(COE)·시장평가(PBR)를 정량적으로 대조하는 데서 시작한다. 본 결과지는 그 출발점을 백서 벤치마크로 대신 수행한 것이다.

제도 성격	작성 주체	공시 방법·주기	이사회 관여
자율공시	**전략·재무 부서**	**KIND · 연 1회**	**의무 아님**
참여 여부·지표 선택·시계(視界) 전부 기업 자율 (p.103~104)	「전략 및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p.105)	계획서 첨부 제출, 주기적 공시 권장. 홈페이지 공개보다 KIND가 먼저 (p.105)	보고·심의·의결은 의무가 아니나 거친 경우 기재 시 신뢰도 제고. 실제 참여 73% (p.104·p.33)

제도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

FIVE CHARACTERISTICS

자율성	참여 여부, 사용할 지표, 목표 시계를 기업이 정한다. 표준 서식·파일형식도 자유이며 가이드라인 내용 전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p.103~104
미래지향성	과거 실적 보고가 아니라 도달하려는 상태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문서다. 목표에는 예측이 수반된다는 점을 제도가 전제한다.	p.103
종합성	재무지표만이 아니라 사업모델·시장환경·경쟁우위·리스크·지배구조를 함께 다룬다.	p.103·p.106
선택과 집중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 강조할 부분을 선정할 수 있음」. 우수사례 20건도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되었다.	p.104·p.82
이사회 책임	이사회 보고·심의·의결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거친 경우 개최일자·심의 내용을 기재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p.104

표준 목차

기업개요 →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평가 → 소통

가이드라인 표준 목차 (p.106). 서식·파일형식은 자유이며 항목 생략도 가능하다 (p.104).

12개 평가항목 거래소는 공시 내용을 12개 평가항목으로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p.73~82). 2025년 선정 20건은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되었고, 코스닥은 20건 중 4건(①④⑦)에 그친다. ② 자본비용(COE) 분석은 전체 587개사 중 1건뿐이다. 12개를 모두 채우는 전략은 이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 VI의 자가채점은 그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백서 p.105 · 다만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종, 사업구조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의미가 크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백서 p.104

>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원론적인 목표 설정 지양」*
> — 백서 p.76 · 목표에는 기간과 산출 방법론이 함께 붙어야 한다.

제도가 만든 관측 결과 주기적 공시기업 주가 +100% · 본공시 기업 시총 비중 72.2% · 기관투자자 최우선 평가요소 38% — 출처와 기준일은 「시장 맥락」 절에 함께 싣는다.

적용 ㈜위지트는 코스닥 상장사이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력이 없다. 백서 12개 평가항목 중 ②⑥⑨⑩⑪⑫는 코스닥 선정 0건 구간이므로, 착수 시 항목 선택의 자유도가 오히려 넓다.

II 벤치마크 체계와 산출기준

BENCHMARK BASIS

백서의 수치는 성격이 다른 두 계열이며 섞으면 진단이 무너진다. 본 결과지는 모든 지표에 두 기준선을 함께 표시하고, 값의 위치로만 판정한다.

기준선	모집단	출처	의미 — 무엇을 재는 자인가
목표선 업종 공시기업이 앞으로 도달하겠다고 약속한 수준	완결형 공시 187개사 (고배당 약식 400개사 제외)	백서 PART 02 · p.34~53	우리 목표가 업종 대비 튀는지를 재는 자
실적선 시장이 실제로 기록한 수준	공시 587개사 / 미공시 1,994개사	백서 PART 03 · p.54~71	현재 위치를 재는 자

산업재 ROE는 목표 14.2% vs 실적 5.8%로 2.4배 차이난다. 어느 선을 인용하는지 문장에 반드시 명시한다.

산식

FORMULAS

내재 COE (백서 산식)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 g = 0 가정 (p.40 각주). 참고 표기 전용 —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외생 COE (판정용)

COE = Rf + β × ERP

CAPM 입력값이 있으면 우선, 없으면 업종 도출 COE(p.40)를 쓴다

Equity Spread

ES = ROE − 외생 COE

내재 COE로 재면 ES = ROE(1 − 1/PBR)이 되어 「PBR이 1을 넘는가」의 동어반복이 된다

목표 PBR 상한

상한 = 목표 ROE ÷ 업종 도출 COE

초과 시 p.41 경고 대상 — 검증 부담과 시장 불신

백서 벤치마크는 여섯 계열이다

SIX FAMILIES

계열	이름 · 성격	모집단	출처	용도
A	**목표치 벤치마크** 공시기업이 약속한 수준	완결형 187개사	p.34~53	목표의 공격성 검증
B	**실적 벤치마크** 시장이 기록한 수준	공시 587 / 미공시 1,994	p.54~71	현황진단의 비교 기준
C	**국제 벤치마크** 국가 간 비교	MSCI Index	p.15·56·62	저평가 논거
D	**지배구조 벤치마크** 15개 핵심지표 채택·이행	187 / 87 / 46개사	p.50~52·71	평가항목 ⑫ 목표 설계
E	**제도·심사 벤치마크** 12개 평가항목·우수사례 20건	2025년 공시분	p.73~82	어느 항목을 노릴지
F	**시장 기대 벤치마크** 기관투자자 설문	103명	p.98~101	무엇을 중시하는지

본 결과지 III의 판정은 A·B만 사용한다. C·D·E·F는 판정에 쓰지 않고 VI·VIII의 맥락으로만 인용한다.

판정 규칙

JUDGMENT RULE

양호 두 기준선 중 높은 쪽 이상 · 주의 두 기준선 사이 · 위험 두 기준선 중 낮은 쪽 미만 · 참고 백서에 기준선이 없는 지표 — 값만 표기 · 산출불가 입력 누락 — 무엇이 없었는지 표지에 기재

두 선의 상하 관계와 무관하게 단조(monotone)하도록 정의했다. 정보기술 업종처럼 목표 배당성향 23%가 시장 실적 37.4%보다 낮은 역전 사례가 실재하므로 「목표선 이상이면 양호」 규칙은 쓸 수 없다. Equity Spread만 예외로 0%p 이상 양호 / −2%p 이상 주의 / 미만 위험으로 본다.

인용 시 주의 표마다 모집단이 다르다. 목표 ROE 합계 12.0%는 ROE 제시 109개사, 도출 COE 전체 11.4%는 ROE·PBR 동시 제시 기업 기준이다. · 에너지 3개사·유틸리티 1개사·기타 1개사는 백서에서 「업종 평균」으로 표기되나 대표성이 없다. 해당 업종은 판정을 참고로만 쓴다. · 목표치 표에는 시장별(코스피/코스닥) 분해가 없다. 코스닥 비교는 실적 기준(p.66)만 가능하다. · 도출 COE는 개별 기업별 산출 후 평균한 값이라 표의 평균끼리 나눠 검산되지 않는다(전체 10.0% vs 11.4÷1.04 = 10.96%).

II 벤치마크 체계와 산출기준 계속 — 본 진단 적용분

BENCHMARK BASIS · CONT.

현황진단 시 고려사항 SCOPE

사업모델	주요 사업부문 구분, 제품·서비스 종류와 특징, 사업부문별 매출·이익 추이 및 비중
시장환경	시장 특성·규모, 경쟁환경, 점유율과 시장 내 위상
경쟁우위요소	인적·물적 자원, 기술력
리스크요인	거시경제·산업·개별기업 측면의 주요 리스크

가이드라인 지표 분류 METRICS

시장평가	PBR, PER 등
자본효율성	[자본수익성] ROE, ROIC / [자본비용] COE(주주자본비용), WACC
주주환원	[배당] 배당금액·배당성향·배당수익률 / [자사주] 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 [종합] TSR, 주주환원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자산증가율, R&D투자증가율
기타	자산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 FCF, 부채비율

현황진단 시 고려사항 (p.106). 본 결과지는 이 중 정량 축(자본효율성·시장평가·주주환원·성장성)만 대조한다. 사업모델·시장환경·경쟁우위·리스크 서술은 공시서류 작성 단계의 몫이다.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지표 분류 (p.107). 본 결과지 III의 대조표는 이 분류를 따른다.

본 진단에 적용된 기준선 APPLIED BAS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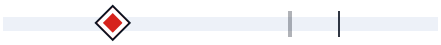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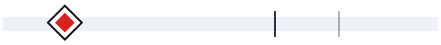
지표	실적선 목표선	산출 출처	모집단 · 주의	의미 — 무엇을 재는가
ROE (자기자본이익률)	14.8% 17.3%	업종 2025 실적 ROE (p.67) 업종 목표 ROE (p.40)	목표 = ROE 제시 109개사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률. 저평가가 수익성 문제인지 판별하는 1차 축
PBR (주가순자산비율)	2.1배 1.7배	업종 2025 실적 PBR (p.67) 업종 목표 PBR 평균 (p.38)	목표 = PBR 제시 46개사	시장이 자본에 매기는 값. 목표선 제시는 상위 26%에 드는 희소 축
COE (자기자본비용)	— 10.4%	없음 (참고 표기) 업종 도출 COE (p.40)	ROE·PBR 동시 제시 기업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평가항목 ②의 핵심이며 전체 587개사 중 1건만 선정된 축
Equity Spread (ROE − COE)	0.0%p 0.0%p	기준 0%p 기준 0%p	—	ROE − COE. 음수면 PBR이 1배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된다
배당성향	37.4% 23%	시장 2025 배당성향 (p.66) 업종 목표 배당성향 (p.43)	실적선은 업종별 분해가 없어 시장선 사용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율
주주환원율	37.4% 28%	시장 배당성향 대용치 (p.66)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p.43)	주주환원 목표 제시 162개사	배당 + 자사주까지 포함한 총환원. 실적선은 대용치이므로 판정을 좁게 읽는다
TSR (1년)	— 22%	없음 업종 목표 TSR (p.43)	TSR 제시 15개사	주가상승 + 배당의 총주주수익률

판정하지 않는 지표 — 배당수익률 (—) · 매출액 CAGR (성장성 제시 112개사 — 개수만 존재) · 영업이익 CAGR (영업이익 목표 25개사 — 개수만 존재) ·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제시 38개사 — 개수만 존재). 아래 항목은 백서에 벤치마크가 없다. 본 결과지는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는다 — 없는 기준선을 있는 것처럼 쓰지 않는 것이 이 진단의 하드룰이다.

적용 시가총액을 확보해 PBR·내재 COE·Equity Spread를 모두 산출했다. Equity Spread 판정 COE는 CAPM 파라미터 미입력이므로 백서 정보기술 업종 도출 COE 10.4%를 외생 COE로 사용했다.

III 벤치마크 대조표

BENCHMARK COMPARISON

검사 항목	산식	결과값	참고범위	실적선	목표선	판정
자본효율성 · 시장평가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ROE (자기자본이익률) 3개년 평균 -2.9%	지배주주순이익 ÷ 평균 지배주주지분 × 100	5.7%		14.8%	17.3%	위험
PBR (주가순자산비율) 업종 목표 범위 1.5~2.0배	시가총액 ÷ 지배주주지분	0.39배		2.1배	1.7배	위험
COE (자기자본비용) 산출근거 내재(ROE÷PBR, g=0) · 업종 도출 COE 10.4%	내재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 g=0 가정, 백서 p.40 각주) / CAPM = Rf + β×ERP	14.8%		–	10.4%	참고
Equity Spread (ROE − COE) 판정 기준 COE = 업종 도출 COE 10.4% (백서 p.40) · 내재 COE 기준 -9.1%p (참고 — PBR>1 여부의 재진술이므로 판정 근거로 쓰지 않음)	ROE − COE(외생). 0 이상이면 자본비용을 넘어선 상태 = PBR>1의 이론적 조건	-4.7%p		0.0%p	0.0%p	위험
주주환원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배당성향 공시기업 평균 48.2% · 미공시 29.7% (p.66)	현금배당총액 ÷ 당기순이익 × 100	0%		37.4%	23%	위험
주주환원율 ⚠ 실적선은 시장 배당성향 대용치입니다(백서에 주주환원율 실적 벤치마크 없음)	(현금배당총액 + 자사주 취득액) ÷ 당기순이익 × 100	0%		37.4%	28%	위험
배당수익률 백서에 목표 배당수익률 업종 벤치마크 없음(제시 7개사) — 참고 표기	주당배당금 ÷ 주가 × 100	0%		–	–	참고
TSR (1년) TSR 실적 벤치마크는 백서에 없음 — 목표선만 대조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	22%	산출불가
성장성 · 수익성 실적선 = 백서 PART 03 · 목표선 = 백서 PART 02						
매출액 CAGR ⚠ 백서에 업종별 목표 매출성장률 수치표 없음 — 참고 표기(제시 104개사)	(FY2023→FY2025) 연평균 성장률	270.27%		–	–	참고
영업이익 CAGR ⚠ 백서 벤치마크 없음(제시 25개사)	연평균 성장률	165.89%		–	–	참고
영업이익률 ⚠ 백서에 업종별 목표 영업이익률 수치표 없음(개수만 존재) — 자체 근거 필요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5.35%		–	–	참고

판정 규칙 — 두 기준선 중 **높은 쪽 이상 = 양호** / **사이 = 주의** / **낮은 쪽 미만 = 위험**. 기준선이 없는 항목(백서 미제공)은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IV 주요 이상 소견 KEY FINDINGS

위험 배당성향 0%

실적선 **37.4%** · 목표선 **23%** · 목표선까지 23.00%

제27~29기 3개 회계연도 연속 결산배당이 없었고 배당절차 개선방안도 미이행 상태다. 다만 별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265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 53억원이 있어 재원 자체가 없는 상태와는 구분된다.

위험 주주환원율 0%

실적선 **37.4%** · 목표선 **28%** · 목표선까지 28.00%

배당 0원에 자기주식 취득·소각도 0건이므로 주주환원율은 정의상 0%다. 보유 자기주식 446,849주(0.38%)는 전량 과거 공개매수분으로 최근 3년간 변동이 없다.

위험 PBR (주가순자산비율) 0.39배

실적선 **2.1배** · 목표선 **1.7배** · 목표선까지 1.31배

시가총액 557억원은 지배주주지분 1,447억원의 0.39배다. 연결 자본총계 4,061억원 중 비지배지분이 2,614억원(64.4%)이어서, 시장이 종속회사 가치를 지배주주 몫으로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이 배수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V 업종 표준 목표 레인지 TARGET RANGE

목표 ROE	목표 PBR
11.5% → 17.3% **중기 → 장기 2단계** 현재 ROE 5.7%와 업종 목표 평균 17.3%의 갭이 11.6%p로 10%p를 초과합니다. 단일 목표는 검증부담이 커지므로 중기 11.5% → 장기 17.3%의 2단계로 제시하십시오.	**1.7배** **업종 범위 1.5~2.0배 · 상한 1.66배** 목표 PBR 상한 = 목표 ROE 17.3% ÷ 업종 도출 COE 10.4% = 1.66배. 이를 넘는 목표는 백서 p.41 경고 대상(「과도하게 높은 PBR … 검증 부담 … 시장 불신」).
목표 주주환원율	**목표 기간**
28% **배당성향 23%** 업종 목표 주주환원율 평균 28% (배당성향 23%). FCF·순이익 데이터 부족으로 여력 검증 불가.	**3년** **중기** 중기 3년(FY+3) — 백서 표준(중기 52.9% / 3~5년, p.36)

지표 채택률 맥락 정보기술 업종에서 시장평가(PBR)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21%뿐입니다 — 제시하면 상위군에 듭니다. 자본효율성 42% · 주주환원 79% · 비재무지표 54.2% (백서 p.35·p.53)

> *「그러나 ROE÷COE 대비 과도하게 높은 PBR을 설정할 경우, 향후 성과에 대한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 백서 p.41

VI 12개 평가항목 자가채점

KRX 12-ITEM SELF SCORING

1	다각적·입체적 현황진단 우수사례 티씨케이(코스닥), 피에스케이홀딩스(코스닥)	미충족
2	자본비용(COE) 등 분석 우수사례 한화시스템 · 코스닥 0건	미충족
3	중장기 계량적 목표설정 우수사례 지역난방공사, 케이씨씨 · 코스닥 0건	미충족
4	종합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우수사례 코미코(코스닥)	미충족
5	목표달성 위한 구체적·합리적 계획수립 우수사례 키움증권, 하나투어 · 코스닥 0건	미충족
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우수사례 신한지주, 농심 · 코스닥 0건	미충족
7	목표달성 평가 및 원인분석 우수사례 디케이앤디(코스닥), LG이노텍	미충족
8	이행평가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 우수사례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 · 코스닥 0건	미충족
9	주요 경영진(C-level·이사회)의 소통 참여 우수사례 롯데쇼핑 · 코스닥 0건	미충족
10	적극적인 소통정책 수립 및 이행 우수사례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지주 · 코스닥 0건	미충족
11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영문공시) 우수사례 한국항공우주 · 코스닥 0건	미충족
12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목표·이행일정 우수사례 코웨이, 풀무원 · 코스닥 0건	미충족

자가채점 **0** / 24점

응답 12/12항목

우수사례 20건은 각 사가 **단 1개 항목**에서만 선정됨 — 선택과 집중이 맞습니다

선점 가능 항목 (희소성 순)

- **2. 자본비용(COE) 등 분석**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최고 · 재무데이터로 즉시 착수 가능
- **11.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영문공시)**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높음
- **4. 종합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 전체 우수사례 1건뿐 · 재무데이터로 즉시 착수 가능
- **6. 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 코스닥 선정 0건 · 희소성 높음

VII 종합 소견

CLOSING OPINION

저평가의 위치는 수익성과 연결 구조 두 곳으로 갈린다. 지배주주 ROE 5.7%는 업종 실적선 14.8%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연결 당기순이익 240억원 자체는 적지 않다. 이 중 지배주주 귀속분이 78억원(32.5%)에 그치는 것은 비지배지분이 자본총계의 64.4%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이익창출력 문제와 그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 문제가 겹쳐 있다.

Equity Spread는 -4.7%p로, 자기자본이 요구수익률을 4.7%p 미달로 회수하고 있다 — PBR이 1배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다. 백서 산식(ROE÷PBR, 영구성장률 0%)으로 역산한 내재 COE는 14.8%로 업종 도출 COE 10.4%보다 4.4%p 높다. 이 격차가 백서 평가항목 ②가 요구하는 분석의 출발점이며, 587개 공시기업 중 해당 항목 선정 사례는 한화시스템 1건·코스닥 0건이다.

목표는 ROE 갭 11.6%p가 10%p를 넘어 중기 11.5% → 장기 17.3%의 2단계로 산출됐고, 목표 PBR 상한은 17.3% ÷ 10.4% = 1.66배다. 이를 넘는 목표는 백서 p.41 경고 대상이다. 선점 여지는 ②(자본비용 분석)와 ⑪(영문공시)에 있다. 성장성과 TSR은 판정에서 제외했다 — 매출 CAGR 270.3%는 2024년 연결범위 변동에서 나온 값이고, TSR은 2026년 4월 30일 3대 1 무상감자로 주가 시계열이 단절됐다.

VIII 시장 맥락

MARKET CONTEXT

주기적 공시기업 주가	공시기업 시총 비중	기관투자자 최우선 평가요소
+100%	**72.2%**	**38%**
단회 +82% · 미공시 +59% 2024-05-27=100p, 2026-03-31 기준 (p.59)	본공시 587개사 유가 305 / 코스닥 282 (p.30)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 중장기 목표·지표 적합성 29% (103명, p.100)

IX 다음 단계

NEXT STEPS

β 산출기간·출처와 시장위험프리미엄을 확정해 CAPM 기반 외생 COE를 자체 산출한다.

종속·관계기업 지분가치와 지배주주지분 순자산 대응표로 PBR 0.39배를 수익성 요인과 구조 요인으로 분리한다.

별도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유동부채 만기구조를 대조해 주주환원 재원의 여력을 확정한다.

REFERRAL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서류 작성

본 진단은 **현황 대조와 목표 레인지 제시**까지입니다. KIND 제출용 완결형 본공시 작성(COE 산출 근거·Equity Spread 시계열·12항목 충족 설계·지배구조 로드맵)은 별도 단계입니다.

출처 『2026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한국거래소, 110p). 목표치 벤치마크는 '26년 3월 말까지 완결형 계획을 제출한 **187개사**(고배당 약식 400개사 제외), 실적 벤치마크는 공시 587개사·미공시 1,994개사 기준입니다.

COE 산식 백서 p.40 각주 「COE = ROE ÷ PBR, 영구성장률은 0% 가정」. 본 진단의 Equity Spread는 이 **내재 COE가 아니라 외생 COE**(CAPM 또는 업종 도출 COE)로 산출했습니다 — 내재 COE로 스프레드를 재면 「PBR이 1을 넘는가」의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본 주의 에너지 3개사·유틸리티 1개사·기타 1개사는 백서에서 「업종 평균」으로 표기되나 대표성이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판정을 참고로만 사용하십시오.

백서에 없는 벤치마크 업종별 목표 영업이익률 수치표 (개수만 존재: 수익성 43개사·영업이익률 38개사) · 부채비율·유동비율 목표 벤치마크 · 목표치의 시장별(코스피/코스닥) 분해 — 실적 기준 시장별만 존재(market_actual). 해당 지표는 값만 표기하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고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공시이며, 백서 p.105는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한계 본 결과지는 제공 데이터 기반의 분석적 검토(review)이며 감사(audit)가 아닙니다. 투자·신용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 항목별 개선방향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13단계 항목 전체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각 방향은 KIND 밸류업 공시 첨부 계획서 **427건 / 222개사**를 구조화한 관측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채택 건수는 **관측 빈도이며 우수성 지표가 아닙니다** — 업종·규모·상황에 따라 맞는 선택이 다르므로 최종 선택은 회사가 합니다. 비율은 탐지 재현율 75% 기준의 **하한**입니다.

① 기업가치 진단

미충족 · 코퍼스 채택 당기순이익 91.3% (390건) · 매출액 81.5% (348건) · 영업이익 77.5% (331건) · 자회사구조 57.8% (247건) · 474자

공시 이력이 없어 자사 진단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단이 산출한 값은 영업이익률 5.35%, 지배주주 ROE 5.7%, 매출액 CAGR 270.3%다. 코퍼스 424건(99.3%)이 이 항목을 다뤘고 관측된 축은 당기순이익·매출액·영업이익·자회사구조 순이다. 앞의 세 축은 사업보고서 수치를 그대로 옮길 수 있으나, 매출액 CAGR 270.3%는 2024년 연결범위 변동에서 나온 값이어서 그대로 실으면 성장률이 아니라 편입효과를 보고하게 된다. 방향은 두 갈래로 갈린다. 연결 기준을 유지하면 편입 전후를 분리한 동일기준 매출을 병기해야 하고, 별도 기준을 병기하면 모회사 매출 361억원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자회사구조 축은 비지배지분이 자본총계의 64.4%를 차지하는 자사 구조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든 필요하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사업부문별·종속회사별 매출과 손익 분해표, 그리고 연결범위 변동 연도의 재작성 기준 확정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재현율 75% 하한

선택 시 필요한 것 부문별·종속회사별 손익 분해표, 연결범위 변동연도 재작성 기준

② 시장평가 분석

미충족 · 코퍼스 채택 자사ROE 80.6% (344건) · 자사PBR 62.5% (267건) · 자기자본비용 26.0% (111건) · PBR 1배미만 명시 19.2% (82건) · 486자

PBR 0.39배, 내재 COE 14.8%, Equity Spread -4.7%p로 세 수치가 모두 산출됐으나 공시된 자사 분석은 없다. 코퍼스에서 자사ROE와 자사PBR은 대부분이 쓰는 축인 반면 자기자본비용을 명시한 것은 111건(26.0%)이고, case1(자본수익성·자본비용 논증형)에서 50.4%, case2에서 14.1%로 갈린다. 백서 선정 사례는 587개 공시기업 중 한화시스템 1건뿐이며 코스닥은 0건이다. 방향은 COE 산출방식 선택에서 갈린다. CAPM을 택하면 무위험이자율 기준일·β 산출기간·시장위험프리미엄 세 값의 출처를 고정해야 하고, 백서 산식(ROE÷PBR, 영구성장률 0%)을 택하면 내재 COE 14.8%가 곧바로 나오지만 이는 PBR 1배 미만이라는 사실의 재진술에 가깝다. 두 값을 병기하면 요구수익률 격차 4.4%p 자체가 분석의 논거가 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β 산출 기간·출처의 확정과 시장위험프리미엄 가이던스 선정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평가항목 ② 선정 1건

선택 시 필요한 것 β 산출기간·출처, 시장위험프리미엄 가이던스, 무위험이자율 기준일

③ Peer 분석

미충족 · 코퍼스 채택 PER 62.8% (268건) · 애널리스트 41.2% (176건) · Peer비교 32.8% (140건) · 글로벌비교 6.3% (27건) · 473자

시가총액 557억원을 지배주주 순이익 78억원으로 나눈 PER은 7.2배다. 코퍼스에서 PER은 268건(62.8%)이 쓴 축이지만 애널리스트 전망치 인용(41.2%)은 커버리지가 있는 기업에 한정된다. 자사는 코스닥 중소형주로 정기 커버리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 축은 쓸 수 없고, 대신 Peer비교(32.8%)와 글로벌비교(6.3%)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용 부품이라는 사업 정의상 국내 코스닥 동종군은 특정 가능하나, 자사 손익에는 종속회사와 관계기업 지분 성과가 크게 섞여 있어 단순 PER·PBR 대비표는 사업 비교가 아니라 지분구조 비교가 된다. 방향은 두 갈래다. 사업 기준 비교를 택하면 별도 또는 부문 기준으로 peer를 맞춰야 하고, 연결 기준 비교를 택하면 비교대상도 지분구조가 유사한 기업으로 좁혀야 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peer 선정기준(업종코드·매출규모·시가총액 구간)의 사전 문서화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재현율 75% 하한

선택 시 필요한 것 peer 선정기준 문서화, 비교 기준(별도/부문/연결) 확정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④ 저평가 원인 분석

미충족 코퍼스 채택 ROE개선필요 22.7% (97건) · 자산효율화 14.3% (61건) · 낮은ROE 8.7% (37건) · 디스카운트 명시 8.2% (35건) 467자

Equity Spread -4.7%p, PBR 0.39배로 저평가의 크기는 이미 수치화돼 있으나 원인 서술은 없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을 다룬 것은 240건(56.2%)이고, 원인을 자본효율에서 찾는 축(ROE개선필요 22.7%·자산효율화 14.3%)과 저평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축(디스카운트 명시 8.2%·낮은ROE 8.7%)으로 갈린다. 자사 조건에서 자본효율 축은 지배주주 ROE 5.7%로 바로 쓸 수 있다. 다만 연결 당기순이익 240억원 중 지배주주 귀속분이 78억원(32.5%)이라는 사실은 자본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 요인이며, 이 부분은 코퍼스의 자본구조 축(5.4%·23건)에 가깝다. 방향은 자본효율 경로를 택해 ROE 개선을 원인이자 해법으로 놓거나, 구조 경로를 택해 종속회사 가치의 지배주주 귀속분을 분해해 보이는 것이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종속·관계기업 지분가치와 지배주주지분 순자산의 대응표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재현율 75% 하한

선택 시 필요한 것 종속·관계기업 지분가치 대응표, 부문별 투하자본 산출

⑤ 제고 목표 설정

미충족 코퍼스 채택 중기계획 60.4% (258건) · ROE목표 38.4% (164건) · 매출목표 30.4% (130건) · PBR목표 9.8% (42건) 504자

설정된 목표가 없다. 진단이 낸 레인지는 ROE 중기 11.5% → 장기 17.3%의 2단계이며, 현재 5.7%와 업종 목표 평균 17.3%의 갭이 11.6%p로 10%p를 넘어 단일 목표 대신 2단계로 산출됐다. 코퍼스에서 중기계획은 258건(60.4%)이, ROE목표는 164건(38.4%)이 제시했고 PBR목표는 42건(9.8%)으로 좁다. 정보기술 업종에서 시장평가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21%다. 자사 조건에서 ROE목표는 이미 산출된 값으로 바로 쓸 수 있고, PBR목표를 함께 낼 경우 상한은 장기 목표 ROE 17.3% ÷ 업종 도출 COE 10.4% = 1.66배다. 이를 넘는 목표는 백서 p.41의 검증부담·시장불신 경고 대상이 된다. 방향은 ROE 단일 축으로 좁히거나 ROE와 PBR을 함께 제시해 자본비용 논증과 연결하는 것이며, 어느 쪽이든 목표연도 명시(41.2%)가 따라붙는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목표연도 확정, ROE 분모(지배주주지분) 정의, 이사회 승인 절차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p.36 중기 52.9%

선택 시 필요한 것 목표연도 확정, ROE 분모 정의, 이사회 승인 절차

⑥ 경영진 전략 연결

미충족 코퍼스 채택 CFO역할 13.8% (59건) · 주식보상 9.8% (42건) · CEO책임 4.4% (19건) 460자

기업가치 지표와 경영진 보상·책임을 연결한 공시나 제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을 다룬 것은 109건(25.5%)에 그치고, 백서 2.6(임직원 인센티브 연계) 충족률은 7.3%, 코스닥 선정은 0건이다. 관측된 축은 CFO의 역할 명시(13.8%), 주식보상(9.8%), CEO 책임 선언(4.4%) 세 가지다. 자사는 이사 5인 중 사외이사 2인이고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어 보상위원회를 통한 설계 경로는 현재 없다. 방향은 세 갈래로 갈린다. 보수 연동을 택하면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절차 안에서 지표 연동 기준을 별도 결의해야 하고, 주식보상을 택하면 자기주식 446,849주(0.38%)의 처분 목적 변경 또는 신규 재원이 필요하며, 책임 선언만 택하면 제도 변경 없이 계획서 문안으로 가능하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연동 지표의 정의(ROE·주주환원율 중 무엇을 쓸지)와 이사회 결의 일정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6 충족률 7.3%

선택 시 필요한 것 연동 지표 정의, 보수 결정 절차, 자기주식 처분 목적 확정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⑦ 이사회 커뮤니케이션

미충족 코퍼스 채택 사외이사 49.4% (211건) · 감사위원회 33.0% (141건) · 전자투표 32.6% (139건) · 집중투표 22.7% (97건) 432자

제2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5인 중 2인이다. 집중투표제는 배제, 서면투표는 미도입, 감사위원회는 미설치(상근감사 1인)이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다. 코퍼스에서 사외이사 축은 211건(49.4%), 감사위원회 141건(33.0%), 전자투표 139건(32.6%), 집중투표 97건(22.7%)이 다뤘고 case2(주주환원·지배구조 제도형)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자사 조건에서 전자투표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기술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관 변경 필요 여부로 갈린다. 방향은 정관 개정 없이 가능한 범위(이사회 결의사항 공개 확대,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로 좁히거나,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회 전환처럼 정관 개정과 주총 안건이 필요한 범위까지 넓히는 것이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정관 개정 대상 조문 식별과 정기주총 일정 역산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12 충족률 57.4%

선택 시 필요한 것 정관 개정 대상 조문 식별, 주총 안건 일정

⑧ 제고 계획 공시

미충족 코퍼스 채택 배당성향현황 60.2% (257건) · 핵심사업집중 57.1% (244건) · 자사주매입 56.2% (240건) · 총주주환원율현황 48.5% (207건) 450자

배당성향 0%·주주환원율 0%·배당수익률 0%로 주주환원 현황 축이 전부 0이다. 코퍼스 425건(99.5%)이 이 항목을 다뤘고, 배당성향 현황(60.2%)과 총주주환원율 현황(48.5%)은 기재가 전제된 축이다. 자사는 제27~29기 결산배당이 모두 없었고 자기주식 취득·소각도 0건이므로 현황란은 0으로 채워진다. 방향은 재원 조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갈린다. 배당 축을 택하면 별도 이익잉여금 265억원 대비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유동부채 2,467억원(유동자산 2,253억원)의 만기구조를 함께 제시해야 하고, 자사주 축(56.2%)을 택하면 취득·소각 여부와 재원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 이익 변동성이 큰 조건에서는 고정 배당성향 대신 조건부(Trigger)형·산식형 설계가 백서 p.44~45의 ③④유형으로 관측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별도 기준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차입금 상환일정 대조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p.44~45

선택 시 필요한 것 별도 배당가능이익 산정, 차입금 만기구조 대조

⑨ CEO / CFO IR

미충족 코퍼스 채택 NDR 55.3% (236건) · 실적발표 45.7% (195건) · IR조직 12.4% (53건) · IR정례화 9.4% (40건) 437자

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례 IR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은 316건(74.0%)이 다뤘고 NDR(55.3%)과 실적발표(45.7%)가 두 축이며, IR 전담조직 명시는 53건(12.4%), 정례화 약속은 40건(9.4%)으로 좁다. 백서 2.9(주요 경영진 소통참여) 충족률은 39.1%, 코스닥 선정은 0건이다. 자사는 감사 지원조직을 겸하는 경영지원팀 3인 체제여서 전담조직 축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 방향은 빈도와 주체 중 무엇을 약속하느냐로 갈린다. 실적발표 정례화를 택하면 분기 또는 반기 단위 개최시점만 고정하면 되고, NDR·컨퍼런스 참가를 택하면 주관사·일정 확보가 선행되며, 경영진 참여를 명시하면 대표이사 또는 재무책임자의 참석 범위를 문안에 특정해야 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IR 담당자 지정, 공정공시 절차 정비, 개최 실적 기록 양식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9 충족률 39.1%

선택 시 필요한 것 IR 담당자 지정, 공정공시 절차, 개최 실적 기록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⑩ 투자자 피드백 수집

미충족 코퍼스 채택 영문공시확대 37.2% (159건) · 홈페이지게재 22.2% (95건) · 영문IR자료 8.2% (35건) · 밸류업전용 페이지 2.6% (11건) 427자

국내 투자자 피드백 수집 체계와 외국인 대상 영문 소통은 자사 모두 확인되지 않으며, 두 축은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 다룬다. 국내 축에서 관측된 선택지는 홈페이지 게재(22.2%)와 밸류업 전용 페이지(2.6%)로, 자사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어 게재 경로 자체는 확보돼 있고 수집한 의견을 어디에 반영하는지의 절차만 정하면 된다. 외국인 축은 영문공시 확대(37.2%)·영문IR자료(8.2%)·영문홈페이지(4.7%)로 갈리며, 백서 2.11은 희소성 높음 항목이고 코스닥 선정은 0건이다. 방향은 국내 축만 먼저 여는 방식과 영문 축을 함께 여는 방식으로 갈린다. 후자를 택하면 번역 범위를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한정할지 IR 자료까지 넓힐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번역·검수 체계, 국문 대비 게재 시점 규칙, 의견 수집 채널의 관리 주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10 21.3% · 2.11 35.4%

선택 시 필요한 것 번역·검수 체계, 게재 시점 규칙, 채널 관리 주체

⑪ KPI 이행관리

미충족 코퍼스 채택 전담조직 6.1% (26건) · 정기점검 1.4% (6건) · KPI연동 1.2% (5건) · 이사회보고 1.2% (5건) 432자

관리할 목표가 아직 없으므로 이행관리 체계도 없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을 다룬 것은 39건(9.1%)뿐이고 전담조직 명시 26건, 정기점검·KPI연동·이사회보고는 각각 5~6건으로 관측 빈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다. 백서 2.7(목표달성 평가 및 원인분석) 충족률도 4.0%다. 자사 조건에서 TSR은 2026년 4월 30일 기준 3대 1 무상감자로 주가 시계열이 단절돼 현재 산출불가 상태이며, 이행관리 지표를 주가 기반으로 잡으면 첫 점검부터 기준선 문제가 생긴다. 방향은 재무지표 기반(ROE·주주환원율)으로 점검 대상을 좁히거나 주가지표까지 포함하되 소급조정 기준을 먼저 고정하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전담조직 신설과 기존 경영지원팀 겸임으로 갈린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감자 전후 주가·주당지표의 소급조정 기준, 점검 주기, 보고선(이사회 보고 여부)의 확정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7 충족률 4.0%

선택 시 필요한 것 주가 시계열 소급조정 기준, 점검 주기, 보고선 확정

⑫ 시장 반응 분석

미충족 코퍼스 채택 이행현황공시 55.7% (238건) · 연간공시 52.2% (223건) · 달성률 제시 6.1% (26건) 445자

최초 공시 전 단계이므로 이행현황 공시 이력이 없다. 코퍼스에서 이행현황 공시를 명시한 것은 238건(55.7%), 연 1회 주기를 명시한 것은 223건(52.2%)이며 달성률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26건(6.1%)으로 좁다. 백서 관측으로 주기적 공시 기업은 84개사·106건이고, 2024년 5월 27일을 100으로 둔 주가지수에서 주기적 공시군은 200, 단발 공시군은 182를 기록했다. 자사는 아직 기준선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최초 공시 시점에 차기 공시 주기를 함께 적을지 여부가 첫 갈림길이다. 방향은 연 1회 주기를 처음부터 명시하는 방식과 목표 달성률 산식까지 함께 고정하는 방식으로 갈린다. 후자를 택하면 달성률의 분모(최초 목표치)와 측정 기준일을 미리 정의해야 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기준일 확정, 비교 대상 지수 선정, 공시 담당 부서의 연간 일정 반영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p.59 주기적 공시 주가 200 vs 단발 182

선택 시 필요한 것 기준일 확정, 비교 지수 선정, 연간 공시 일정

X 항목별 개선방향 계속

IMPROVEMENT DIRECTION BY ITEM

⑬ 전략 수정

미충족

코퍼스 채택 계획수정 5.2% (22건) · 재공시 1.2% (5건) · 환경변화 반영 0.7% (3건)

434자

수정 규칙을 정할 대상 계획이 아직 없다. 코퍼스에서 이 항목을 다룬 것은 28건(6.6%)으로 13개 항목 중 가장 적고, 계획수정 22건·재공시 5건·환경변화 반영 3건으로 관측 사례 자체가 희소하다. 백서 2.8(이행평가 결과의 차기 반영) 충족률도 6.8%다. 자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이라는 전방 산업 변동성이 큰 사업 구조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연결범위 변동과 무상감자가 각각 발생해 계획의 전제가 바뀌는 사건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 방향은 수정 요건을 사전에 정의해 넣는 방식과 정기 공시 시점에 사후 반영만 하는 방식으로 갈린다. 전자를 택하면 무엇을 트리거로 볼지(연결범위 변동, 자본거래, 전방 수요 급변 등)를 계획서 본문에 열거해야 한다. 선택 시 필요한 것은 수정 트리거의 정의, 수정 시 이사회 결의 요건, 재공시 판단 주체의 지정이다.

근거 코퍼스 427건 / 222개사 · 백서 2.8 충족률 6.8%

선택 시 필요한 것 수정 트리거 정의, 이사회 결의 요건, 재공시 판단 주체